



2020년 3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ETF로 투자하기

ETF로 재택근무산업에 투자하기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은 재택근무산업의 성장 계기로 작용할 것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애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더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리테일 소비에서는 온라인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고 게임 등 e-스포츠 산업에서도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를 찾아보자면 바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 국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택근무 확대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IT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진 2000년대 들어 재택근무는 이미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재택근무산업의 성장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재택근무산업과 관련된 주요 섹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재택근무산업은 기본적으로 IT인프라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상회의, 원거리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기술적 도구들이 보편화될 수 있었고 재택근무는 이러한 IT인프라 환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산업은 대체로 IT섹터를 중심으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택근무 산업이라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초기 산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 분류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 섹터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 산업과 높은 관련성을 공유하는 섹터들이다.

대표적 클라우드 컴퓨팅 ETF CLOU, 인터넷 기업 ETF FDN 추천

대표적 클라우드 컴퓨팅 ETF로는 CLOU(Global X Cloud Computing ETF)가 있다. CLOU는 2019년 4월에 상장되어 운용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AUM은 \$439mil로 짧은 기간에 많은 자산유입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양호하다. 상장 이후 누적수익률이 5.46%로 같은 기간 S&P 500지수(2.25%)를 상회하고 특히 변동성이 급등한 금년에도 보험수준의 안정적 성과를 유지하는 중이다.

또 다른 재택근무 테마 종목으로 인터넷 기업 ETF FDN을 추천한다. FDN은 전 세계 1위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인 AWS를 제공하는 아마존이 19%의 비중을 차지하는 ETF이다. 이외에 또 다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구글과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시스코 등이 편입되어 있다. 수익률 역시 양호한 편으로 금년 S&P 500지수 대비 5% 이상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다.

ETF Insight

글로벌 ETF



ETF/자산배분 김훈길
02-3771-7528
Kim.hg@hanafn.com

RA 김중훈
02-3771-3112
joonghu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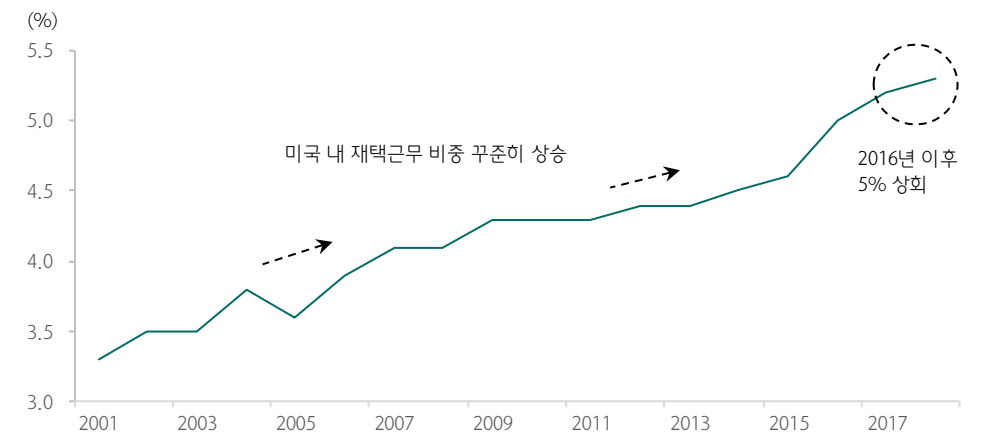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상보다 악화되며 생활형태의 변화 유발. 그 중 하나로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근무 확대되는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고 있다. 애초 동아시아의 지역적 이슈로 한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월 들어 유럽과 미국, 중동 등지로 급격히 확산되며 팬데믹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학원의 휴업이 길어지고 있으며 종교집회 등 대규모 모임도 대부분 취소되었다. 쇼핑활동에 있어서도 직접 상가 방문이 아닌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택근무가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림1>에 보다시피 미국 내 근로자 중 재택근무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는 추세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재택근무는 이전보다 더욱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3월 들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기업들의 재택근무 비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나 46%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1. 미국 내 재택근무 근로자 비중 꾸준히 상승, 2016년 이후 5%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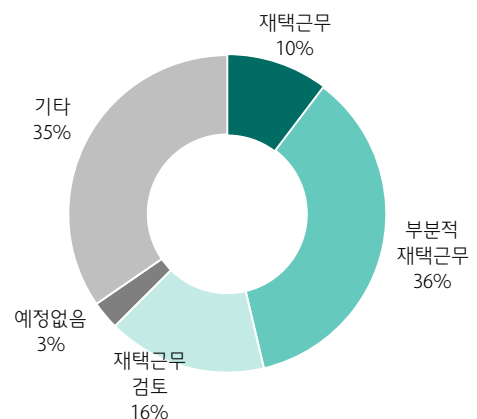
자료: 2017년 US Census,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주요기업 재택근무 상황

Amazon : 3월말까지 재택근무 권고
 Google : 재택근무 권고, 출근자도 방문객 미팅 불허
 Apple : 3월 13일까지 1차적으로 재택근무 권고
 Facebook : 직원 5,000여명 3월말까지 재택근무
 Microsoft : 3월 25일까지 재택근무 권고
 Twitter : 재택근무 강력권고

자료: 언론기사,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코로나19 이후 일본 내 재택근무 비중 46% 내외



자료: 니혼게이지, 하나금융투자

재택근무산업은 기본적으로 IT기술 발전에 의한 결과. 따라서 투자대상으로서의 재택근무산업 역시 대체로 IT섹터 내에 분포

재택근무 관련산업 대체로 IT섹터 내에 분포

재택근무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은 화상회의, 원거리 통신, 업무환경 공유,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을 가능케 했다. <그림4>는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IT인프라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무선인터넷, 휴대용 IT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기능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모두 최근 10년 사이 보편화된 기술들이다. 이런 점에서 재택근무산업은 전형적 초기 산업에 해당하며 향후 성장성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었다 해도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향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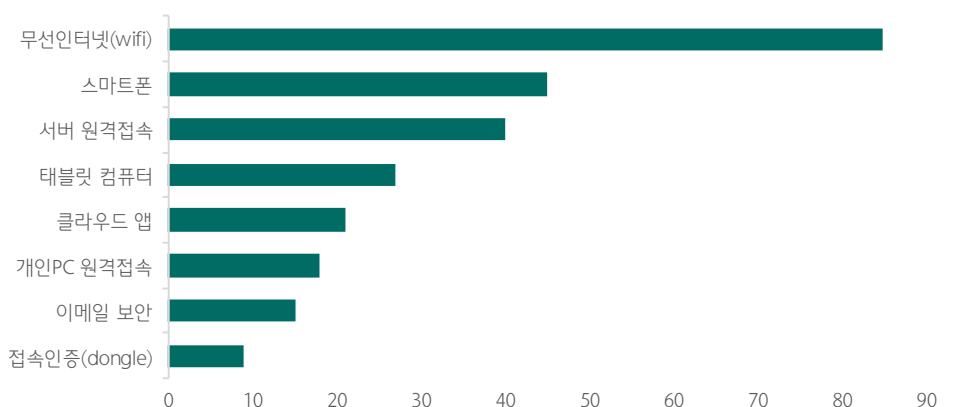
다만 투자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택근무산업을 명료하게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대체로 IT섹터에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택근무산업이란 분류기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단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대표적 재택근무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거리 업무 그 자체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범위를 넓힌다면 소프트웨어 기업과 인터넷 기업을 역시 재택근무와 연관된 사업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LOU와 SKYY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ETF이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기업 ETF IGV, 대형 인터넷 기업 ETF FDN등도 재택근무산업에 해당한다.

표 1. 재택근무 인프라 관련 섹터로 클라우드, 인터넷 등 있으며 연관 ETF로는 CLOU, IGV, FDN 등

분류	code	기초자산	운용사	AUM(\$bn)	보수율(%)	수익률(%, 2020)
클라우드	CLOU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Mirae Asset	0.44	0.68	0.63
	SKY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First Trust	2.29	0.60	-3.68
소프트웨어	IGV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Blackrock	3.21	0.46	-1.73
	PSJ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Invesco	0.45	0.58	-5.53
인터넷	KWEB	중국 인터넷 기업	CICC	2.66	0.76	0.68
	FDN	미국 인터넷 기업	First Trust	7.60	0.52	-2.77

자료: Bloomberg, ETF.com, 하나금융투자

그림 4. 재택근무 시 꼭 필요한 도구, 소프트웨어 (복수응답)



자료: magazine Canada,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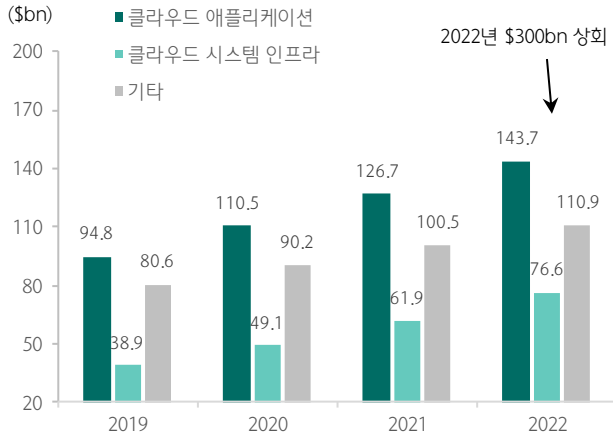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ETF로 CLOU 운용 중. 트랙레코드는 짧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집중도 높고 퍼포먼스 우수

대표적 클라우드 컴퓨팅 ETF CLOU, 금년 수익률 주가지수 상회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산작업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각종 리소스들을 개인PC가 아닌 서버에서 제공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하에서 근로자는 어떤 위치에서건 서버에 접속만 하면 동기화된 업무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굳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현재 미국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의 숫자나 트랙레코드 역시 풍부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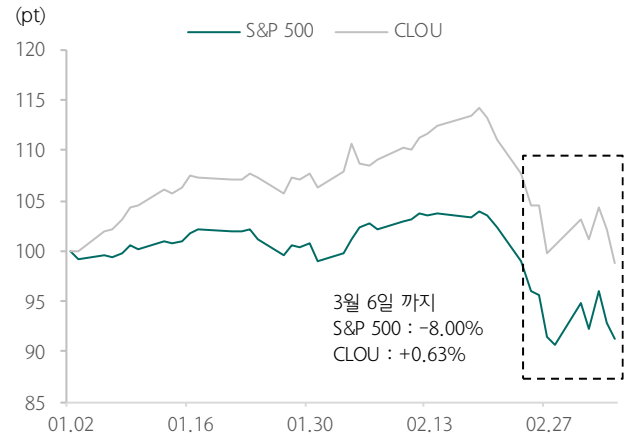
대표적 클라우드 컴퓨팅 ETF로는 CLOU(Global X Cloud Computing ETF)가 있다. CLOU는 지난 해 4월 상장된 종목으로 운용기간은 채 1년이 되지않는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CLOU의 운용규모는 약 4,000만 달러로 크지 않지만 성장속도는 빠른 편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퍼포먼스 역시 양호하다. 특히 금년 들어 증시변동성이 급상승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월 초까지 S&P 500지수가 코로나19 사태로 8% 하락했지만 CLOU는 소폭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장 이후 누적수익률은 5.46%로 역시 같은 기간 S&P 500지수의 수익률 2.25%를 상회한다.

그림 5. 클라우드 산업 연평균 20% 내외 속도로 성장전망



자료: Gartner, 하나금융투자

그림 6. 클라우드 기업 ETF CLOU 금년 주가지수 대비 수익률 우위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클라우드 기업 ETF CLOU 기본 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운용사	Mirae Asset	분배금 수익률(%)	-
상장일	2019-04-12	분배금 지급주기	분기
구성종목 수	37	추종인덱스	Indxx Global Cloud
AUM(\$mil)	438.63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
일 평균 거래대금(\$mil)	5.65	수익률(%, 1y)	-
보수율(%)	0.68	수익률(%, 3m)	1.37
평균 스프레드(%)	0.14	수익률(%, 1m)	-8.86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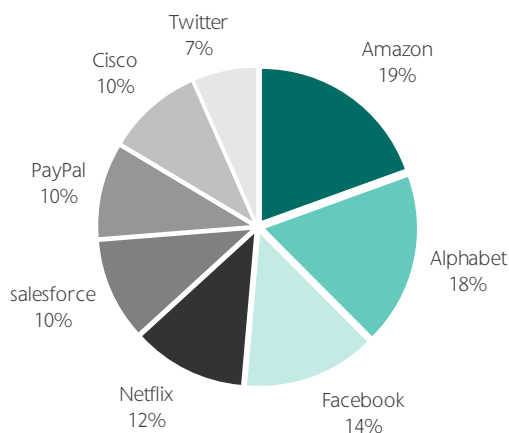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테마에 해당

인터넷 기업 ETF 역시 재택근무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

인터넷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 섹터로 분류된 기업들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큰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외에 구글 클라우드 역시 주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중요 인터넷 기업인 시스코는 네트워크 인프라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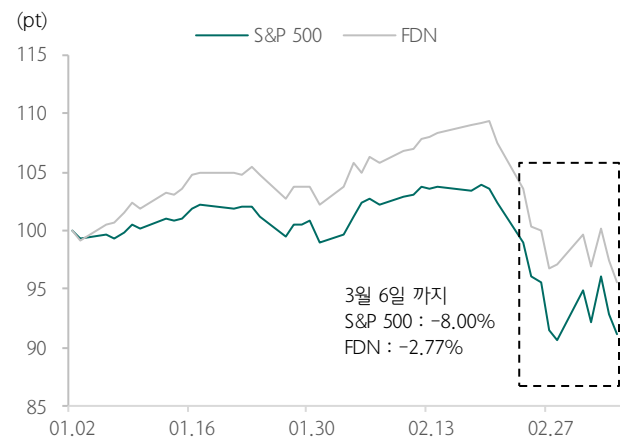
대표적 인터넷 기업 ETF로는 FDN이 있다. FDN은 First Trust가 운영하는 종목으로 2006년에 상장되어 14년의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운용규모는 \$7.6bn이며 일 평균 거래대금이 \$52.8mil에 달하는 대형 종목이다. 주요 편입종목을 살펴보면 <그림7>에서 보다시피 FAANG으로 잘 알려진 대형 IT주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FDN은 나쁘지 않다. 금년 3월 초까지 2.77% 하락했지만 주가지수 대비 5% 이상 상회하는 성과이다. 이들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비단 재택근무 테마가 아니라도 4차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FDN 주요 편입종목 비중 비교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그림 8. FDN 금년 누적수익률 S&P 500 대비 우위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3. 인터넷기업 ETF FDN 기본 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운용사	First Trust	분배금 수익률(%)	0.00
상장일	2006-06-19	분배금 지급주기	분기
구성종목 수	42	추종인덱스	DJ Internet Composite Idx
AUM(\$bn)	7.60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
일 평균 거래대금(\$mil)	52.77	수익률(%, 1y)	-0.75
보수율(%)	0.52	수익률(%, 3m)	0.01
평균 스프레드(%)	0.04	수익률(%, 1m)	-9.93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